

전남도 '탄소 중립 실천' ... 나무 430만 그루 심는다

242억원 투입...목재 수확 산림·산불 피해지 1991ha에 숲 조성 상수리·황칠나무·백합 등...주민소득원·관광 자원화 기반 구축

전남도가 올해 242억원을 들여 4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예방하면서 주민 소득을 높이고 관광 자원 기반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재를 수확한 산림과 산불 피해지 1991ha에 편백, 상수리, 백합, 황칠나무 등을 심어 다양한 기능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대형 산불피해지 복구 70ha ▲양봉산업 육성 밀원숲 441ha ▲산불 예방 내화수림 60ha ▲지역 명품 경관 숲 105ha ▲목재 등 소득 숲 1315ha 조성 등이다.

소득원과 관광자원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순천과 함평지역에는 피해 소나무류 70ha를 제거하고 산딸나무, 배롱나무 등을 심어 주민소득과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총 829ha의 산림이 소실됐으나, 소나무류가 피해받은 322ha는 2026년까지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507ha의 피해 활엽수림은 줄기와 뿌리에 서 왕성하게 움푹(맹아)이 발생함에 따라 제거하

지 않고 자연 복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에 강하고 잘 타지 않으며 수분 함량이 높은 활엽수를 주요 사철, 산림휴양시설, 마을 주변에 심어 산불 예방형 내화수림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목재를 수확한 산림지역에는 편백, 상수리 등을 심고, 한계농지 등에는 뽕, 두릅 등을 심어 주민소득원을 육성한다.

특히 3000여 양봉농가의 밀원 확충을 위해 아까시, 헛개나무 등을 심어 양봉 산업화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자연재해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늦출 수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나무 심기 확대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숲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10년간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산림과 생활권, 섬 지역 등에 매년 1000만 그루씩 총합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억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주년 기념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중앙공원 1지구' 광주 도시계획위 통과 공공기여는 시·사업자 협의 뒤 심의

민간 사업자, 선분양 전환 시 1천억 공공 기여 의사 밝혀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규모 변경안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다.

도시계획위는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 부담 공공 기여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 간 협의 뒤 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공원(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도시계획위는 비 공원 시설(아파트) 종류와 규모 변경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동동·봉암동 일대 243만5027㎡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는 비 공원 시설 면적에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천772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도시계획위는 분양 방식 변경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부담을 줄여줄 공헌에 요구한 공공 기여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을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402)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과 함께 선분양 재전환으로 생긴 금융비용 절감액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1000억원을 공공 기여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도 회의에서 공개됐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공공 기여 등 관련 협의를 거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위는 협약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선분양, 후분양, 다시 선분양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생긴 특혜 논란을 해소할 해법이 협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건설 원가 산정의 신뢰성 부족,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 공원 수준 저하 우려 등 의견도 제시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 사업자, 전문가, 시민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 5·18 44주년 과제 제시

5·18 가치 헌법전문 수록 등 4개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헌법 전문 수록 등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왜곡과 폄훼가 사료로, 다시 망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시 맞이할 5월, 44주년 앞에 4가지를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5·18 가치의 헌법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의 충실한 정리, 5·18 관련 조례 통합, 오월 광주의 대한민국 대표 행사화 등이다.

강 시장은 "5·18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의 출발"이라며 "이번 총선에 맞춘 원포인트 개헌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45주년을 맞는 내년은 헌법 전문 수록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 미리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오는 6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와 관련해 미완의 보고서는 5·18을 왜곡·폄훼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에 요청할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보고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흠여져있는 10개의 5·18 관련 조례를 통합 조례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로 완성하고, 헌법 전문화, 행정·의회·기관의 역할 등을 담겠다"면서 "오월 광주가 민주의 승리를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행사가 되도록 분열과 갈등을 털고 나눔의 오월 정신으로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민대상+명예의전당 통합 시행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가 시민대상의 품격과 권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광주시민대상'과 '명예의전당'을 통합한다.

광주시는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5개 분야별로 선정하던 '시민대상'과 시정 발전, 나눔과 기부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헌액하던 '명예의전당'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는 '시민대상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꾸려 시민대상 심사 절차와 명예의전당 통합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의회와 협의해 '광주시 시민대상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 절차에 따라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내년부터 통합된 시민대상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배달앱 '뽕겨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동

4월 14일까지 할인 쿠폰 지급 등

전남도가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뽕겨요' 이용 고객들이 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배달앱 '뽕겨요'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 공공배달앱 '떡케비'와 동시에 공공·상생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연동에 맞춰 '뽕겨요'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4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한 달간 먹킷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정 브랜드 주문 달성 시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첫 주문+재 주문 이벤트, 1일 1회 랜덤으로 최대 2만3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뽕겨요' 이벤

트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매일 11일, 22일마다 진행되는 '뽕데이' 이벤트, 신한은행 연계 적립 가입 시 1만 원 할인쿠폰 지급, 신한은행 계좌 결제 시 뽕겨요페이 10%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를 누릴 수 있다.

'뽕겨요' 가입 전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빠른 정산 서비스와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입점이 가능하며 20만 원 상당의 사장님지원금, 뽕겨요 가맹점 전용 신한은행 대출 상품 및 마케팅 수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풀, 하프,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후모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월) 용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2024 한국유테미스트 전국유테대회
5. 4.(토) ~ 5. 5.(일) 유테발해수육장 2개 총액 12개(유테미스트 10, 토파즈 2)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월)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2024. 5. 3. (금) ~ 5. 7.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경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Jeollanamdo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KTA